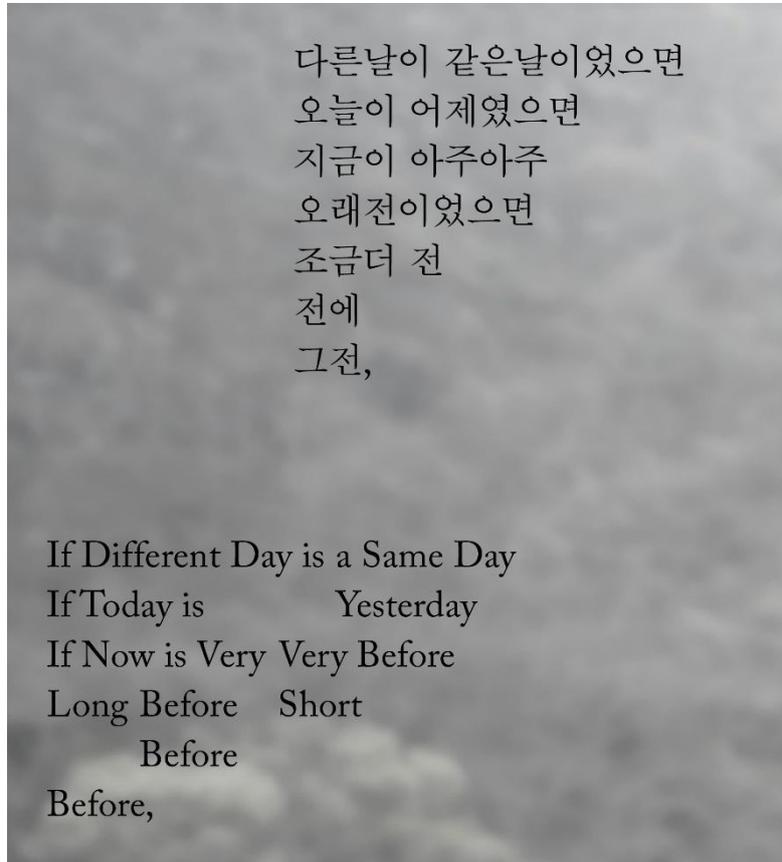


[보도자료]

써니킴 개인전 <다른날이같은날이었으면...>



○ 관람 안내

참 여작가: 써니킴

전 시 제 목: 다른날이같은날이었으면

오늘이 어제였으면

지금이 아주아주

오래전이었으면

조금더 전

전에

그전,

후 원: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일 정: 2020년8월11일(화)– 2020년9월2일(수)

장 소: 에이라운지(A-Lounge)

(문의: 02-395-8135, 이승민: 010-5222-8135)

개관 시간: 화-토, 11am-6pm (일, 월 휴관)

○ 전시 개요

에이라운지는 오는 2020년 8월 11일부터 9월 2일까지 써니킴(Sunny Kim)의 개인전 <다른 날이 같은 날이었으면...>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올해 상반기 전세계를 마비시켜버린 코로나 19의 팬데믹으로 인해 미국에 고립되어 버린 작가와 그렇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배은아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통해서 기획되었다. 이번 전시 이전에 이미 두 차례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협업을 진행하였던 두 사람은 코로나 19 사태로 정상적인 작업의 상황이 불가능한 작가의 현실적인 상황과 한국과 미국의 물리적인 거리와 시차 앞에서 하나의 질문을 던진다. “지금 우리에게 전시를 만든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둘은 ‘무엇을 전시할 것인가’가 아닌 불가능할 것만 같은 전시를 가능하게 하려는 단 하나의 바람으로 이번 전시를 만들게 된다. 그리고 이 기획은 두 사람을 예상치 못한 시간의 여정으로 이끈다.

고립 속에서 유일한 현실적 재료였던 ‘기억’을 통해 써니킴은 자신의 삶에서 각인된 한 순간을 다른 시간의 축과 연결시킨다. 벼룩시장에서 발견한 사물이나 엽서 혹은 문학 속 한 페이지와 연결된 기억들은 작가로 하여금 때로는 절망으로, 때로는 희망으로 연결점을 만들어 나간다.

이번 전시는 6점의 회화 작업과 합판으로 이루어진 설치구조물, 영상작업, 작가가 친구인 배은아를 위해 낭독했던 책, 그리고 작가의 수집품들로 구성되었다. 작가는 팬데믹으로 인한 격리와 고립의 시간 동안 과거를 되돌아보았다. 이때 작가가 회상한 과거는 과거 그 자체로 고정되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다. 계속해서 이동하고 변화하는 살아 움직이는 것이었다. 그는 이번 봄 모든 것이 정지될 것만 같은 시간을 통과하면서 ‘살아있음’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지나간 시간을 다듬는다. 그리고 그 주변을 채우고 있었던 먼 시간을 가까이 마주하면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재생되고 다시 끝나가는 기억의 살아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 작가 소개

써니킴 (b.1969)

써니킴은 2001년 교복을 입은 소녀를 그린작업을 시작으로 회화, 영상, 설치 등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작가이다. 그는 인간의 상실되고 불안정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이미지들을 회화의 형식으로 재구성하고, 그늘 너머의 기억 혹은 상상이 만들어지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일시 정지된 ‘허구의 공간’을 구축한다. 그는 어린시절 미국으로의 이주를 통해서 자신이 겪은 이민 1.5세대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이라는 문화와 이질적인 미국이라는 양 문화를 아우르고자 하는 욕구를 작업으로 가시화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보낸 짧은 유년기의 기억 속에서 채집한 교복입은 소녀들, 이를 전통 자수나 다른 관습적인 이미지들과 병치시키고, 그들이 사라진 풍경을 만드는 다분히 의식적인 차용과 배제의 방식을 통해 다다를 수 없는 ‘완벽한 이미지’의 실현을 시도해왔다.

써니킴은 일민미술관을 비롯, 16번지, 스페이스비엠,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등 다양한 공간에서 전시를 개최한 바 있고, 2017년에는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 후보에 오르며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전시작품 이미지 & 캡션

이미지를 사용하실 경우, **반드시** 아래의 크레딧 정보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써니킴

큰 꽃나무 Big Flower

Tree

2019

캔버스에 아크릴

146×113cm



써니킴

시점

Point of View

2015

캔버스에

아크릴

50×65cm



써니킴

비경 Hidden View

2019

캔버스에 아크릴

122×92cm



써니

킴

돌 던지기 Playing Stones

2020

HD

비디오, 칼라, 소리

A-L

contemporary art space A-Lounge

6min 50sec